

코로나19,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한다

“재난 극복을 위해 공식적으로 ‘임상병리사’에게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를 요청한다면, 보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게 최우선 아닐까요?”

김민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소 검진팀장(임상병리사)의 말이다. 지금까지 28만 건 이상 완료된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는 의료기관 및 수탁검사 전문기관에서 24시간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 보고를 위해 쉴 틈 없이 검사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진단검사 실무자인 ‘임상병리사’가 있어 가능했다. 현재 서대문구보건소에는 7명의 임상병리사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의 첫 단계인 호흡기 검체 채취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은 서대문구보건소를 방문해 이곳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대문구보건소는 진료와 검체 채취로 용도가 구별된 2동의 음압텐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호 팀장을 비롯한 ‘임상병리사’들은 검체채취실로 온 사람들의 상기도 및 하기도에서 면봉을 이용해 검체를 채취한다. 기존엔 의사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시행했지만, 임상병리사가 현장에 투입돼 검체 채취를 전담하자 서대문구보건소의 진료 대기시간은 절반으로 감소했고, 하루 진료 인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김민호 팀장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보건소 중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를 시행하는 곳은 단 9곳뿐”이라며 “그동안 대부분 의사가 해왔기 때문에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공식적으로 검체 채취를 요청받았던 법적으로 허용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호흡기 검체 채취에 대한 협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규정 상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호흡기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인호 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현장과 검사실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임상병리사가 자랑스러우며, 협회의 위상 제고와 회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 및 확진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서대문구보건소 음압텐트에서 보호복을 입고 검체 채취에 임하는 김민호 임상병리사의 모습

김민호 회원 (서대문구보건소 검진팀장) 인터뷰

Q.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서울특별시 지방의료기술주사 공무원으로 현재 서대문구보건소 검진팀장으로 근무중이며 각종 검진,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등을 총괄하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등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가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증가해 걱정이 되는데, 서대문구보건소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여전히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 등 많은 인원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19 발생 초기부터 적은 인력으로 장기간 진료와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의사, 임상병리사 등 선별진료소 중사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Q. 현재 서대문구보건소에서의 근무 시간이나 형태는 어떠신지요?

A. 서대문구보건소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총 7명이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 격상된 후 진료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보건소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선별진료소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검체 채취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검체채취를 해야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N-95 마스크, 전신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09:00~21:00시이며 7명이 평일과 주말 3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서대문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는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서대문구보건소에는 선별진료소를 위한 음압텐트 2동이 운영중이며, 1동은 진료용도로 1동은 검체 채취 용도로 구분하였습니다. 선별진료후 검체채취가 필요한 환자는 검체채취실로 이동하여 채취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 및 검체채취 두 가지를 병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임상병리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되어 진료와 검체채취를 분리시킴으로서 진료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고 하루 진료인원을 대폭 늘릴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임상병리사의 호흡기 검체 채취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회원분들도 계십니까.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한 부학회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A. 현재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입니다. 적법을 따지기 이전에 재난극복을 위해 공식적으로 임상병리사에게 검체채취 도움을 요청한다면 역할을 수행하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적법여부, 회원의 유희리를 따지는 시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여전히 길 이 면데요, 앞으로의 각오 부탁드립니다.

A.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임상병리사로서 무엇인가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한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힘내요 대한민국!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손씻기, 마스크 쓰기, 물리적 거리 두기 실천해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동참합시다.
코로나19 종식의 그날까지 **임상병리사**가 함께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3월 30일자 경향신문 1면 광고시안

코로나19 확진검사 숨은 주역, 진단검사실무자 “임상병리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고, 전문가들로부터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현재 확인된 확진자 수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판을 받는 가운데, 한국의 진단검사 역량에 대해서는 주요 외신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2월 7일부터 일선 의료기관 및 수탁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시작하여 2월

말부터 매일 1만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지금까지 46만 건 이상의 검사를 완료했다. 2월 중순만 하더라도 하루 5,000건에 불과했던 검사 수가 어떻게 단기간에 1만 건으로 증가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은 코로나19 검사의 중심에는 진단검사 실무자인 ‘임상병리사’가 있다.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법에 의거하여 가검물의 채취, 채혈 및 각종 화학적 생리학적 검사를

수행하는 보건 의료 실무 인력이다. 임상병리사가 의료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검사의 종류는 수백 가지에 이르고, 모든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여 결과를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현재 의료기관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당연히 임상병리사의 역할이다. 코로나19에 사용되는 진단법은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Real time-PCR)으로 가래와 인두 및 후두에서 도말하여 채취된 검체를 진단 시약을 이용하여 임상병리사가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음압검사실에서 4~6시간을 검사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과를 보고하며 이 검사법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3월 10일 기준, 코로나19 검

사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수탁 검사기관 96개소에서 수백 명의 임상병리사들이 코로나 확진 진단검사를 위해 24시간 헌신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임상병리사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등과 함께 검체 채취 및 진단검사 실무자로서 헌신적으로 묵묵히 활약하고 있지만 그 인지도는 높지 않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어려운 현장과 검사실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임상병리사가 자랑스러우며, 협회의 위상 제고와 회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들께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자투고

글: 정혜은(청주의료원)

코로나19 감염은 임상병리사가 차단한다

‘청주시민이 청주의료원 의료진과 함께합니다’

위와 같은 문구의 현수막이 우리 병원 입구에 걸렸다.

코로나19 감염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지역 내 공공병원인 우리 청주의료원은 지난 2월 29일로 입원환자 전원 및 외래진료를 끝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되어 병원 입구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병원현관 입·출구에 자외선 장치 설치하여 감염전파를 최소화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검체 채취를 위해 선별진료실을 운영하고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문진·발열 체크·검체 채취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소독·환기 시간을 줄여 시간당 평균 검체 채취 규모를 늘렸다. 그래서 도내 확진자와 함께 대구·경북지역의 환자도 적극 수용하여 치료 중에 있다. 우리 임상병리사들은 감염병전담병원에 맞게 24시간 운영체제로 업무 전환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체 채취 및 현관입구 발열체크 업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고, 감염병 대응체계 매뉴얼에 따라 검체는 3중 용기

로 포장되어 수탁업체와 보건소로 전달되어 빠르게 확진검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결과를 임상병리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지난 사스, 메르스 사태를 이겨 내며 감염병 검사체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있어 검체 운송 및 보호복 착용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다. 혈액검사를 위해 각 병실에 들어갈 때는 레벨 D 보호복위에 AP비닐 가운을 덧입고, 장갑 위로 몇 번의 손위생 작업이 이루어진다. 장갑 너머로 감각을 집중해 채혈한 뒤 검체통은 뉴젠티슈로 소독 후 지퍼백에 담고 또 한번의 소독 후 검사실로 검체 이송이 이루어진다. 심전도 검사는 손 위생은 기본이고 꼼꼼한 장비소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환자 검사한 후에는 보호복 안이 맘으로 흠뻑 젖고 N95 마스크와 맞닿는 컷등이 얼어버린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지역주민 및 여러 기관의 따뜻한 응원 손길 덕분에 힘을 얻는다. 신중 감염병 차단 우리 손으로! 전국 임상병리사 여러분 힘내세요.

임상병리사, 인천공항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한다



"16명의 임상병리사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의 국내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검체 채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국군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중인 김명철 회원의 말이다. 오는 5월 전역을 앞둔 김명철 회원은 자신의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인천국제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내 이른바 '오픈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 진료소는 외국인 입국자 중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들의 전용 검사를 위해 마련된 곳이다.

오픈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공항의 특성을 이용했다. 개방된 공간에서 바람에 의해 오염원이 해소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전한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 정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입국자 중 검사 대상자들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부스를 각각 8개씩 설치해 총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부스에는 김명철 회원을 비롯한 임상병리사 자원봉사자들이 1명씩 배치되어 총 16명의

임상병리사 회원이 검체 채취를 수행한다. 확진 가능성이 높은 유증상자들은 공항 검역소 내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는다.

지난 3월 30일, 황성준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 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선별진료소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와 중앙회는 음료와 간식을 준비해 선별진료소에 전달했다.

황성준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임상병리사 회원 자원봉사자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방문했다"며 "우리 임상병리사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회원들의 작은 마음을 모았다"고 이번 간식 지원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장인호 협회장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임상병리사가 자랑스러우며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물론 검체 채취도 임상병리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므로, 협회는 이와 같은 회원들의 노력을 알고, 진단검사 실무자로서 전국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 당국은 4월 1일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사와 2주간의 격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글로벌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정확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조건, 임상병리사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모범 대응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진단검사와 검사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각국이 코로나19 확진 검사에 사용하는 진단키트는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을 사용한다. RT-PCR은 유증상자의 객담이나 구인두 혹은 비인두 가검물을 채취한 다음 RNA를 정제한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이 유전자들을 증폭하는 방식으로 감염 여부를 판별한다. 초기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개한 검사법을 바탕으로 E gene을 선별용으로, RdRp gene을 확인용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현재는 N gene과 ORF1a gene을 대상으로 만든 시약에 대해서도 긴급사용승인을 하고 있다. 진단시약을 만드는 회사에 따라 증폭시켜 확인하는 유전자 부위가 다르다. RT-PCR 검사법은 고가의 장비와 정도관리가 필요한 실험실을 갖춰야 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임상병리사가 필요하다. 6시간 내로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정확도는 95% 정도다. WHO는 RT-PCR를 최종 확진 검사법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 긴급사용승인 대상도 RT-PCR 진단시약에 국한된다. 대표 기업으로는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코젠바이오텍, 씨젠,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등이 있다.

미국 하원의원이 청문회에서 "한국 진단키트는 단일 면역글로불린항체만 검사하기 때문에 식품의약국(FDA)이 응급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항체검사법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RT-PCR와는 엄연히 다른 검사법이다.

항체검사법은 면역진단법, 혈청검사 등으로 불린다. 바이러스 감염 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초기 항체 IgM, IgG를 혈액에서 검사하는 방법이다. 항체검사 전문회사로는 유럽 CE-IVD를 받은 수젠텍, 해외수출용 허가를 받은 SD바이오센서 등이 있다.

항원이나 항체를 이용한 면역검사는 10여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성이 최대 장점이며 고가 검사장비나 전문 임상병리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정확도가 50~70% 수준으로 낮아 확진 검사법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크다. 코로나19가 양성임에도 음성으로 진단하게 되면 방역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소식

장인호 협회장, 서울 주요 병원 방문해 밤낮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헌신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들 격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주요 병원(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밤낮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만나 현장의 노고를 직접 듣고 임상병리사의 위상 제고와 근무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들 병원은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표적인 코로나19 검사 수행기관이며, 전국의 96개 의료기관 및 수탁검사기관에서 수백 명의 임상병리사가 하루 1만여 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장인호 협회장은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과 실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음압검사실 등을 찾아 이곳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격려했다.

현장의 임상병리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각 검사실의 상황을 알려주는 한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국가적인 유행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검사 업무에 묵묵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 실무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아쉬워하며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 필수인력 배치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코로나19 검사의 중심에 임상병리사가 있다"며 "국가적 보건 안보 차원에서 임상병리사가 감염관리 실무자로 인정받아 임상병리사 필수 배치와 진단검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0.03.01 ~ 03.31

- ▶ 3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관련 임상병리사 직군 및 협회에 대한 대내외 홍보, 대구·경북지역 및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 3월 19일: 학술발전위원회 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제58회 종합학술대회 학술프로그램 기획 ▲2020년도 연구과제 주제 선정 ▲코로나19 관련 학술분야 대책이 논의되었다.
- ▶ 3월 28일: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중앙회와 제주도회 집행부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제58회 종합학술대회 개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분과별 준비과정,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추후 계획에 대해 보고, 논의하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요 포털 및 일간지 광고 진행

협회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포털 사이트 네이버·다음에 온라인 광고를 진행했다. 또한 경향신문 3월 30일자 1면 하단 광고도 함께 집행했다. 이번 광고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검체 채취 및 확진검사를 임상병리사가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광고는 '네이버' PC화면 로그인 메뉴 아래, '다음' 검색창 아래 메인 배너에 게재되며, '힘내요 대한민국! 코로나19 종식의 그날까지 임상병리사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사진과 함께 송출된다. 경향신문 광고는 3월 30일자 신문 1면에 게재됐으며 '힘내요 대한민국!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검체 채취를 시행하는 임상병리사의 모습이 담겨 있다. 협회는 이번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을 인지시키고, 진단검사의 실무자라는 역할을 알리는 데 적극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한 공보부회장은 "많은 임상병리사들이 코로나 현장에서 진단검사 실무자로 활약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직업명이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했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각종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임상병리사라는 직업과 그 역할을 명확히 인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TV 프로그램 및 뉴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임상병리사라는 직업과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0.03.01 ~ 03.31

- ▶ 3월 6일: 서울 주요 병원(신촌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을 방문해 회원 격려.
- ▶ 3월 12일: 서대문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체 채취와 관련해 회원들과 간담회 진행.
- ▶ 3월 18일: 제3차 회장단 회의를 진행. 이후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
- ▶ 3월 19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신문사 세이프타임즈와 간담회 진행. 코로나19 관련 이슈 및 임상병리사 직군, 역할에 대해 설명함.
- ▶ 3월 24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SBS CNBC와 간담회 진행. 임상병리사 관련 방송 섭외 및 출연에 대해 논의함.
- ▶ 3월 27일: 서울 중구 코리어나호텔에서 열린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제2차 정기총회에 참석.
- ▶ 3월 30일: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 황성준 회장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 자원봉사자 회원들을 격려하고 음료 및 간식 전달.

www.choongil.com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밭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일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CHEMISTRY DxC 8801, DxC 800, AU Series
 IMMUNOASSAY DxI 800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SERUM PROTEIN IMMAGE 800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LAB Automation System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IMMUNOLOGY ELISA Reagent
 MAST ALLERGY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Molecular Diagnostics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서울시회

서울시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현장의 회원 격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현재는 약 90여 국가에서 발생 중이다. COVID-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이재진)는 정확하고 빠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밤낮없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또한, 회장단 회의를 통해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검사파트 회원들에게 간식 및 음료 지원금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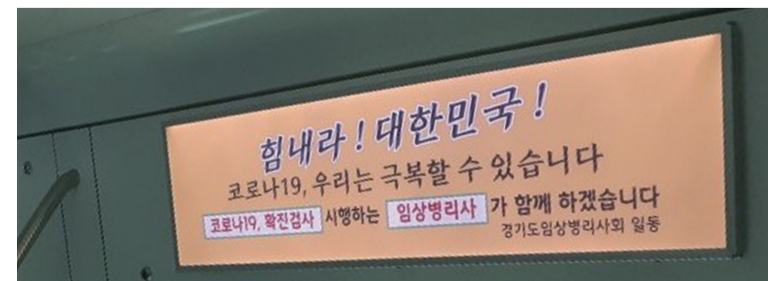
이재진 회장은 "검사의 현장에서 회원님들께서 느끼는 고단함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서울시임상병리사회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전해드리오니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하였다. 서울시회는 회원들의 헌신에 비하면 작지만, 앞으로도 서울시회는 회원님들을 위해 더욱 나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기도회

경기도임상병리사회, 코로나19 관련 지하철 광고 집행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이광우)는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수도권 전철 분당선 열차에 게재했다. 광고는 4월 초순부터 한 달 동안 게재되며 '코로나19 확진검사 시행하는 임상병리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담아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민들을 응원하는 동시에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알렸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KJCLS)'가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DOAJ)에 등재"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가 국제 OA저널 데이터베이스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DOAJ)에 등재됨 임상검사분야의 학술적 위상을 높였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회장 장인호)는 지난 25일 학회에서 발행하는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KJCLS)'가 DOAJ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DOAJ는 세계 최대 Open Access(OA) 저널 데이터베이스로서 SCOPUS 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충족조건이며, 학술저널을 평가, 분류하는 양적, 질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올 2월 25일 기준 134개국 14,313종의 저널과 약 465만여 건의 논문이 등재된 상태이며, 국제 OA기준에 부합하고자 58개 항목을 평가해 심사에 통과한 저널만 게재하고 있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편집위원장 이기중 교수(연세대학교)은 "학회지가 DOAJ 등재를 통해 국제 규격을 갖춘 학술지로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원문을 제공하여 본 학회지에 투고 및 논문의 인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학술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회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물인 만큼, 올해 KCI 등재학술지 평가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는 1967년 10월 창간 이후 임상검사 분야에서 연간 수많은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며, 매년 4회 정기 발행 중이다. 아울러 원고는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서 수시로 접수 가능하다.

앞으로 PubMed Central, EMBASE, ESCI, SCOPUS, SCI(E), MEDLINE 등 등재 목록에 발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도 수혈전문임상병리사 교육생 모집 연기 안내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에서 주관하는 수혈전문임상병리사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2020년 4월 1일(수) ~ 4월 30일(목)까지 2020년도 수혈전문임상병리사 교육생 모집을 안내하였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부득이 교육생 모집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모집일정은 6월 1일(월) ~ 6월 30(화)일이며 6월에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이 진정되지 않으면 무기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락 및 문의 :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수혈전문임상병리사실무위원회

- 1) 김윤호 간사 (010-8937-7989)
2) 김동찬 실무위원장 (010-2763-5525)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회장

충북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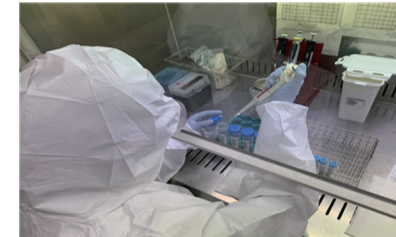
코로나19 현장에서

명예기자: 조현영(충북대학교병원)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고 주의, 경계단계를 지나 대구·경북지역의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지금은 국가 전체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충북대병원에서도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검사가 폭주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팀이 구성되었다. 코로나19 검사는 바깥쪽으로 내부기가 나가지 못하도록 음압검사실에서 시행되며 입실 전 반드시 Level D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검체는 격리병동과 응급실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하며 상기도 검체로 구인두와 비인두에서 분비물을, 하기도 검체로 객담을 받아 각각 전용 용기에 담는다. 채취된 검체는 삼중포장상태로 이송



되어 검사실 코로나전용 검체 보관함에 검사 전까지 냉장 보관된다. 접수된 검체 리스트를 확인 한 후 호흡기검체의 점액성분을 균질화 하는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장비로 핵산추출에 약 2시간이 소요되며 Real time PCR 반응으로 약 2시간이 걸려 검체 전처리부터 결과 판독까지 약 6시간이 소요된다. 코로나 검사의 빠른 결과와 진단을 위해서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 마다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검사 건수가 많아지면서 증폭 장비와 추출 장



비를 추가로 늘려 검사의 로딩을 줄이고 하루에 처리 할 수 있는 검사 건수도 늘렸다. 현재 충북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매 검사에 신중하게 임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체를 다루면서 자신은 물론 동료, 가족들까지 감염시킬 수도 있다는 심각한 부담감도 있기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복되는 검사와 보호구 착용에 지치다가도 여러 기관과 단체의 관심과 격려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다시 힘을 내본다. 또한



국가적 위기 상태에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달았고 자부심을 느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임상병리사 동료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해 본다.

충주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후

명예기자: 임종웅(충주의료원)

'COVID-19'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세계로 확산된지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충주의료원은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COVID-19)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료진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소독과 대기시간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충청북도 북부지역거점 충주의료원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약 70여명이 입원해 치료 중에 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지난 2월 입원환자 전원을 마무리했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수용할 병실을 확보했다. 이동식 음압기를 추가 설치하여 총 42개의 음압병상이 확충되었다. 정부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입원·간강검진·장례식장을 운영중이며, 외래는 전화처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병원 입구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병원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하는 등 감염위험 및 외부출입을 최소화했다. 또한 3월부터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 안에 탑승한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 문진, 발열체크, 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이러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검사 대기자와 의

감염병단계가 위기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후 충주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직원들은 검사실 업무 외에 감염병 관련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Level-D 보호복을 모두 착용한 후 환자 이송에 이용된 차량 및 환경 방역업무, 병동폐기물 수거 작업을 맡고 있다. 또한 병원 내·외부출입자에 대한 발열체크 업무도 임상병리사들이 지원하고 있다. 임상병리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감염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체가 위탁기관 및 보건소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명단관리 및 검체 이송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지역주민, 그리고 충주 지역의 기업과 단체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힘을 얻고 오늘도 힘을 내본다.



QI(Quality Improvement) 주제는 무엇을 할까?

명예기자: 김미영(창원파티마병원)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활동으로 원내 QI 경진대회 금상, 3연속 대상, 금상, 동상이라는 6년연속 수상 쾌거를 이루어 낸 창원파티마병원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의 QI활동을 공유하고자 한다.

▶ 2014년도 설명(안내) 방법의 개선을 통한 외래 채혈실 고객 만족도 향상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체 제작한 설명(안내) 동영상을 채혈실 대기중에 볼 수 있도록 상영하여 임상병리사가 채혈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하게 되었다.

▶ 2015년도 자동검사결과검증시스템 도입으로 TAT단축 및 만족도 향상

적시에 양질의 검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검사결과검증(Auto-verify)시스템은 자체 기초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적용Rule를 개발, 검증하여 적용하였다. 2016년에는 시스템 고도화로 자동 통보율 향상을 위한 CQI 활동을 실시하여 각종 통계와 검증된 자료를 근거로 Rule 수정 및 보완하여 자동화부의 자동 통보율을 증가시켰다.

▶ 2016년도 OCS와 산업의학센터 간의 연계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업무효율 향상

OCS와 산업의학센터 간의 연계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오류 제거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괄접수 화면 수정보완, LDL 추가검사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출장검진의 대량 일괄 접수와 원활해져 접수시 소요시간이 50% 이상 단축되었고, 프로그램 보완으로 추가 검사 누락 제거로 인한 처리시간이 단축되었다. 두 부서간 업무상 갈등도 감소되어 부서간 협업을 이룬 성과라 높이 평가 받았고 2017년도 CQI 활동 실시하였다.

▶ 2017년도 채혈시스템 개선활동으로 업무 효율과 직원 만족도 향상

채혈 업무 시스템 개선활동으로 채혈요청 전화로 인한 부서간 불필요한 업무 발생을

줄이고, 응급 채혈에 대한 업무 부담감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채혈요청 전화 건수는 53.2% 감소되었고, 직원 업무 만족도는 54.2% 향상되었다. 3년 연속 이경진대회 대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8년도 CQI 활동을 실시하여 전 병동 확대 운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LIS내 부재표시, 상호협약에 의한 병동 라운딩 시간 조율 등 추가 개선활동으로 보다 더 체계화되었다.

▶ 2018년도 조직검사표본 제작의 질적 관리

조직표본 슬라이드의 제작단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환경요인, 교육요인, 프로세스요인 등 개선활동을 중점적으로 조직표본제작오류율은 개선 전 2.76%에서 개선 후 0.94%로 개선 전 대비 1.82%p감소하였다.

▶ 2019년도 결과보고 예정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하여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

결과입력 보고 창에 결과보고 예정시간이 보여지게 검사항목 예상소요시간을 기초프로그램에 등록하여 LIS프로그램에 구축하였다. 검사진행 상황을 임상과와 공유하고 결과통보예정시간 문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창원파티마병원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는 부서장, 과장, 임상병리사 전원이 협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신뢰받는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라는 비전을 실현할 뿐 아니라 임상병리사 업무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병원 내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위상과 임상병리사로서 자긍심도 한층 고취되는 계기가 되었다.



씨젠의료재단,

2020 조선일보 사회공헌대상(제9회) 4년 연속 수상

재단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지난 3월 26일 디지털조선일보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동반성장위원회 ·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2020 조선일보 사회공헌대상(제9회)」에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부문을 4년 연속 수상했다.

「2020 조선일보 사회공헌대상(제9회)」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헌신과 노력을 기울인 기업과 단체를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학술교육 · 사회복지 · 자원봉사 · 지역사회발전 · 공유가치창출 등 총 12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여한다.

씨젠의료재단은 그동안 국내외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질병검사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원 지역 및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참여형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선한봉사센터 · 굿피플의사회 등 사회봉사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국내에서 20여 회, 필리핀 · 캄보디아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케냐 등 9개 국가에서 20여 회, 총 40회 이상의 보건의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재단이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은 보건의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보건의로 자립 기반을 현지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베트남 농평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9년 5월에 국제구조개발 NGO 굿피플인터내셔널과 함께 푸토성 지역에 다이안씨젠 보건소를 건립하고 유무형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 Seegene Korean Clinical Laboratories를 개원하고 현지 주민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술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 의학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천중기 이사장은 “사회공헌에 대한 재단의 작은 노력을 큰 상으로 돌려주시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행복이라는 공유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재단 임직원 모두가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힘써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회원 출산 기념품 지급 안내

협회에서는 출산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출산기념품과 협회비 및 면허신고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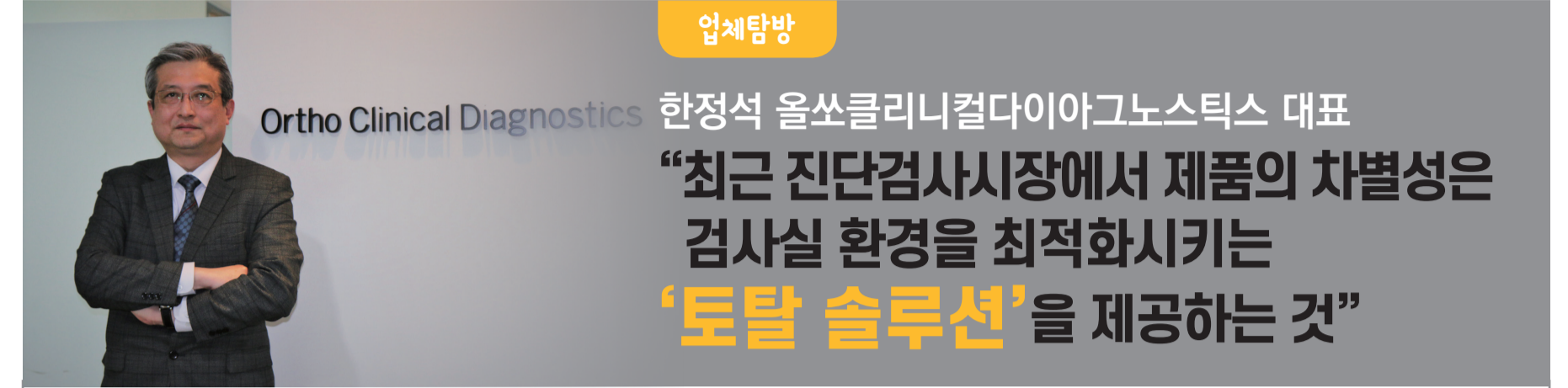
- ① **지급품목:** 출산선물(내의), 협회장 인사말&면허신고 안내문
- ② **적용기준:** 출산대상자 및 직계 가족(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적용)
- ③ **증빙자료:**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접수일자:** 매월 10일 이전
- ⑤ **접수처:** 소속 시도지회 담당자

중소병의원 상조 복지사업 안내

협회에서는 중소병의원 회원 대상으로 상조 복지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조금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각 시도지회 담당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① **대상자:** 2020년 3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회원으로서 직계부모 사망 시 지급
- ② **지급액:** 10만원
- ③ **제출서류:** 경조금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 ④ **접수처:** 소속 시도지회 담당자

업체탐방



Ortho Clinical Diagnostics 한정석 올쏘클리니컬다이아그노스틱스 대표

“최근 진단검사시장에서 제품의 차별성은 검사실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도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올쏘클리니컬다이아그노스틱스(Ortho Clinical Diagnostics)는 ‘Because Every Teat is a Life’라는 모토를 가지고 생화학, 면역, 수혈검사, 검사실자동화시스템 등의 분야의 진단시약 및 장비를 취급하는 회사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올쏘클리니컬 다이아그노스틱스 한정석 대표를 만나 회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진단검사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우선 올쏘클리니컬 다이아그노스틱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모태는 필름 회사로 유명한 코닥(Eastman Kodak Company)입니다. 현재도 주력 제품인 슬라이드(Slide) 형태의 진단화학검사가 바로 코닥 사의 다층 필름 기술(Multi-Layer Film Technology)을 토대로 제작된 ‘Vitros’ 제품입니다. 이후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사가 코닥에서 위 제품의 진단검사 라인을 인수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혈액형 진단시약 사업 부문과 합치면서 현재의 올쏘클리니컬 다이아그노스틱스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 한국 진출 과정과 현재 어떤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Dry Slide Chemistry’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Dry Slide Chemistry’는 당시에 혁신적인 기술로 이를 통해 대형병원 응급검사실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사는 1995년에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이후 화학발광법을 기초로 하는 면역검사 제품을 국내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진단화학검사, 진단면역검사, 수혈검사 제품 라인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까지 존슨앤존슨 안에 있었던 올쏘클리니컬 다이아그노스틱스는 2017년 칼라일 그룹(Carlyle Group)으로 인수, 합병되면서 독립적인 기업이 되어 더욱 가파른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 사용 편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특화된 기술로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도모해 검사실에서 검사의 질(Quality)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올쏘클리니컬다이아그노스틱스의 주요 사업과 제품군은 무엇인가

저희 사업은 크게 진단화학검사장비 및 시약, 진단면역장비 및 시약, 수혈관련 제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진단화학검사장비 및 시약(Vitros Micro Slide & Tip)은 다층 필름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형태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액상 형태의 시약은 하루 평균 수십 리터의 물을 소모합니다. 이에 대비해 필름 형태의 시약은 전하물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체 내 포함되어 있는 각종 검사방해 물질(interference material)들을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시약 자체에서 제거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와 정확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 나머지 제품군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단면역장비 및 시약(Vitros Microwell)은 화학발광법을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시약입니다. 마이크로센서(Micro Sensor) 기술을 이용해 검체의 ‘Serum Index(H, I, T)를 추가 작업과 비용 없이 측정하고 보정해주기 때문에 특히, 용혈(Hemolysis) 검체에 영향을 받은 심장병(Cardiac) 검사의 적용에 매우 유용합니다. 수혈관련 제품(Vision TM)은 수혈 예정자의 적합혈을 찾기 위한 검사 장비와 시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혈액은행 시장에서는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 주력하고 있는 제품 분야가 있다

최근엔 다양한 타사 장비와 연결이 가능한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Total Laboratory Vitros Automation system, VAS)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단업계의 주요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기능이 접목된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TLA System) 뿐만 아니라 검사실 신입인중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미들웨어(Middleware) 기능을 검사실환경진단서비스(ValueMetric)를 통하여 검사실에 제공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오랜 경험을 살려 전문적으로 개발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쏘클리니컬 다이아그노스틱스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저희 회사의 ‘Ortho Dry chemistry’ 기술은 정확한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간섭물질을 배제시킴으로써 정확한 검사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기존에 맞는 검사 결과가 아닌,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 저희 제품만의 우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를 돕는 것만큼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 또한 저희 제품의 강점입니다.

- 현재 한국 지사에 임상병리사도 있는지 궁금하다

올쏘클리니컬다이아그노스틱스 한국지사에는 학술부 2명, 그리고 영업부 1명이 임상병리사 출신으로서 전문화된 지식을 활용해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지사는 본사의 다양한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유일한 채널로 제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임상병리사를 채용한다면 어떤 역량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

임상병리사는 진단검사 관련 회사에서 주로 학술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진단시장의 트렌드가 점점 더 전문화된 지식으로 무장된 영업사원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영업인력으로서의 잠재성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병리사를 채용할 때는 당연히 임상병리사로서의 전문 지식 유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곳이니 소통, 협력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본사가 있는 만큼 영어 구사 능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듣고 싶다

저희 회사는 향후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TLA) 시장에 주력해 명실공히 진단검사 시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체외진단 분야는 계속해서 전문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국가에서 진단검사 시장을 독립된 법 체계 내로 편입시키면서 신제품 등록 및 판매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준비 비용, 시간을 크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에도 느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려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진단검사 시장에서 제품의 차별성은 장비나 시약의 성능을 뛰어넘어 검사실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올쏘클리니컬다이아그노스틱스는 검사실 환경 진단 서비스를 운영해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차별화 포인트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특별기획연재(상)

연구자: 구본경(삼성서울병원)
주세익(대전대학교)
김대중(동남보건대학교)
장인호(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 및 제주임상병리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임상검사과학회가 주관하는 2020년 제58회 종합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의 슬로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을 대비하는 임상병리사”이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는 본 회 공식학술단체로서 특별기획연재를 통해 북한의 임상검사인력,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과 동포애”에 대한 임상병리사들의 관심,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참여가 고취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자료는 협회>대한임상검사과학회 홈페이지> KJCLS Search> Archives> 2020> Vol. 52 No. 1 또는 학술지> 최근논문>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2020년 52권 1호에서 볼 수 있으며 내려받을 수도 있다.

북한 임상병리사 현황

2012년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개소식의 축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임상병리사를 실험의사(검사의사)라고 부른다”는 기사가 있었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 실태’에 의하면 북한 의학전문학교에는 준의반, 조제반, 조산반, 보철반, 렌트겐반, 물리치료반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의학전문학교에 ‘실험검사반(또는 임상병리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북한은 해방이후 보건의료체계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이른바 러시아연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북한의 임상검사인력에 대한 자료가 극히 한정적인 관계로 러시아연방(옛소련) 국가의 자료와 비교하면서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1. 러시아 Clinical laboratory physician, feldsher laboratory technician &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이 검사

Clinical laboratory physician은 상등보건일군으로 ‘서방국가의 medical technologist 또는 검사실관리자·책임자 역할과 유사한 laboratory doctor’로서 다양한 형태의 대학원 교육을 받는다고 하였다. 서유럽 국가들이나 소련의 영향을 받은 동유럽 국가들은 검사실전문가의 경우 의사뿐만 아니라 scientist(생화학, 미생물학, 약학 전공자)도 포함하여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는 원칙상 생물학자 또는 화학자가 임상검사실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편이며, 대부분 임상검사실의 생화학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중등보건일군으로 feldsher과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이 있으며 3년제 대학에서 각각 배출된다. 펠셀은 소련 시절에 펠셀(general feldsher), 위생펠셀(sanitary feldsher), 검사펠셀(laboratory feldsher, feldsher laboratory technician) 등의 전문분야로 배출되었으며, 지금은 주로 응급펠셀(emergency feldsher), 향촌펠셀(rural feldsher)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산사, 간호사(예를 들면 소아, 수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2. 북한에는 임상병리사 제도가 없고 의사가 검사

“남한의 임상병리사를 북한에서는 실험의사(검사의사)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실험검사과에 의사가 배치되어 검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에는 임상병리사 제도가 없고 의사 및 준의사 검사

2014년 통일부 신진연구자 연구보고서 ‘북한 보건인력 실태분석 및 통합방안’에 의하면 2011년도 함북 C의학대학병원의 실험검사과(남한의 진단검사의학과) 인력현황에 상등보건일군 5명과 중등보건일군 및 보조의료일군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유추하였다. 보조진단치료과인 린트겐과나 물리치료과의 경우 의사를 비롯해 린트겐기수, 물리치료사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본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고찰해 보면, 실험검사과에서 검사업무는 상등보건일군인 의사뿐만 아니라 중등보건일군인 준의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북한에는 임상병리사 제도가 없고 의사 및 기사(미생물학전공자)가 검사

남북한의 학위 명칭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전문가(사회과학), 기사(자연과학), 교사(사범대학, 교원대학), 준기사(공장, 농장, 어장대학) 등 다양한 학위를 받는다. 다른 탈북 보건의료인의 의견에 의하면 검사는 의사 외에 기사(미생물학 전공자)도 수행한다고 하였다.

5. 북한 임상병리사제도에 대한 제언

북한은 남한의 의료기사(medical service technologists)와 유사한 직능이 있지만, 의학전문학교에 대한 내용이 매우 드물어 구체적 교육과정과 직업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검사의사의 신분은 본 연구자들이 한정된 문헌으로 고찰해 본 결과, 의사뿐만 아니라 준의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된다. 검사준의는 소련 시절의 ‘검사펠셀’과 유사하며, 현재 준의를 위한 양성기관으로 의학전문학교 기초의학교(중전 준의반)가 있지만 준의만 배출하는지 또는 소련 사례처럼 전문분야별로 준의, 위생준의, 검사준의 등을 배출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본회는 통일을 대비하여 유관 단체와 함께 북한 임상검사인력에 대한 직제 전문화 구축과 발전 방향을 상호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임상병리학과 임상생리학교수 워크숍

임상생리학 교수회(회장 동남보건대학교 김대식 교수)는 지난 1월 29일(수) ~ 30일(목)에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2020년도 임상생리학 교수회 동계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전문의 문용석 선생님을 초청하여서 안과 분야의 최근 검사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안저촬영(Fundus photography), 빛간섭단층촬영(OC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각막형태검사(Corneal topography), 시야 검사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안과 분야로 취업이 확대되고 검사방법도 다양화 되므로 임상생리학 교수회에서 안과 분야 검사에 대한 학생 교육을 개선할 부분과 향후 대책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2020년! 인증샷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간단한 감상평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3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2020년 4월 24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사진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46호 당첨자]

● **우연두 회원:** 임상병리사 110인이 대구 시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원했던 기사를 읽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을 존경함과 동시에 임상병리사가 코로나 진단검사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구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저 또한 이곳에서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 헌신하며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과 전국의 모든 임상병리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시내!

● **안지은 회원:** 코로나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검사를 검사 전문가인 임상병리사가 시행 한다는 게 제 직업에 대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임상병리사라고 하면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임상병리사에 대하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 **강민정 회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대구로 가신 것을 기사로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응원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기고글을 기다립니다!

이런 정보,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공유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생한 현장 정보와 노하우를 병리협보를 통해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 접수기한: **매월 20일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kamtreporter@daum.net)으로 원고와 관련 파일 발송

■ 기고문 주제: 임상병리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지금 유튜브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검색하고 구독하여
더 다양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모습들을 확인하세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창립 30주년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씨젠의료재단 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Seegene Korean Clinical Laboratories (SKL)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genemedical.com